

유희동 기상청장, 경북 포항 기상재해 현장 방문

-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력과 철저한 위험기상 감시로 피해 최소화 노력

유희동 기상청장은 오늘(4월 3일), 2022년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지역인 경북 포항 냉천 일대를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기상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포항시장(이강덕)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포항 남구를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내려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기상청과 포항시청은 방재기상관측망 분석과 업무 협력을 통하여 지난해 12월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자동기상관측장비(AWS)*를 신설하여, 관측 공백을 해소하고 조기 위험감시를 통해 재난대응력을 강화하였다.



* 오천AWS 정규관측 일자: 2023년 12월 19일

유희동 기상청장은 포항 냉천 기상재해 현장을 둘러보며, “앞으로 위험 기상을 철저히 감시하고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여 기후변화로 빈번히 발생하는 위험기상에 잘 대응해 나감으로써, 국민 안전을 지키고 기상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밝혔다.

붙임 포항 기상재해 현장 방문 사진

담당 부서	대구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	책임자	과 장	최원주 (053-282-0110)
		담당자	주무관	김정희 (053-282-0118)





| 포항 냉천 현장 방문(오른쪽 유희동 기상청장, 왼쪽 함동주 대구지방기상청장) |



| 포항시청 방문(왼쪽 유희동 기상청장, 중앙 이강덕 포항시장) |